

KT 위즈, 창단 첫 우승 매직넘버 9... 최대 승부처가 온다

‘1.5게임차’ 2위 삼성과 22~23일 2연전 앞뒤

선두 싸움 최대 분수령... 막판 우승팀 가려질 듯

KT 위즈의 우승 확정을 위한 매직 넘버가 등장했지만, 여전히 선두 다툼은 장담할 수 없다. KT의 선두 수성을 위한 최대 승부처가 이번 주 펼쳐진다. 18일까지 순위표 최상단은 KT가 차지하고 있다. 승률 0.579(73승8무53패)를 올리고 있는 KT의 정규시즌 우승 매직넘버는 9다. 그러나 KT는 정규시즌 10경기를 남겨두고 있어 쉽게 마음을 놓을 수 없을 전망이다. 사실상 시즌 막판에야 우승팀이 가려질 가능성이 높다. 2위 삼성 라이온즈(승률 0.579)는

1.5게임 차로 KT를 맹추격 중이다. KT와 2.5게임 차가 나는 3위 LG 트윈스(승률 0.561)도 KT보다 2경기 많은 12경기를 남겨두고 있어 우승 가능성이 있다. 이런 가운데 창단 첫 우승을 향해 도전하는 KT 앞에 중요한 일주일의 시작됐다. KT는 이번 주 5경기를 소화한다. 19일 창원에서 NC 다이노스를 만나고, 20일에는 광주로 가 KIA 타이거즈와 맞대결한다. 하루 휴식 뒤 22~23일에는 대구에서 삼성과 2연전을 치

른다. 24일에는 홈으로 돌아와 키움 히어로즈를 상대한다. 가장 눈길이 모이는 매치는 단연 KT-삼성전이다. KT 입장에서선 선두 수성을 위해 놓칠 수 없는 경기다. 역전 우승을 꿈꾸는 삼성도 반드시 잡아야 하는 2경기다. 순위표가 촘촘해 순위 경쟁을 하는 팀들과의 맞대결 결과가 미치는 영향은 클 수밖에 없다. 일찌감치 이강철 KT 감독도 삼성과의 시즌 마지막 맞대결을 “키포인트”라고 짚었다. KT는 올해 삼성을 상대로 6승1무7패를 기록했다. 그야말로 물러날 수 없는 상황에서 만만치 않은 상대를 만난다. 삼성은 19일 홈으로 두산 베어스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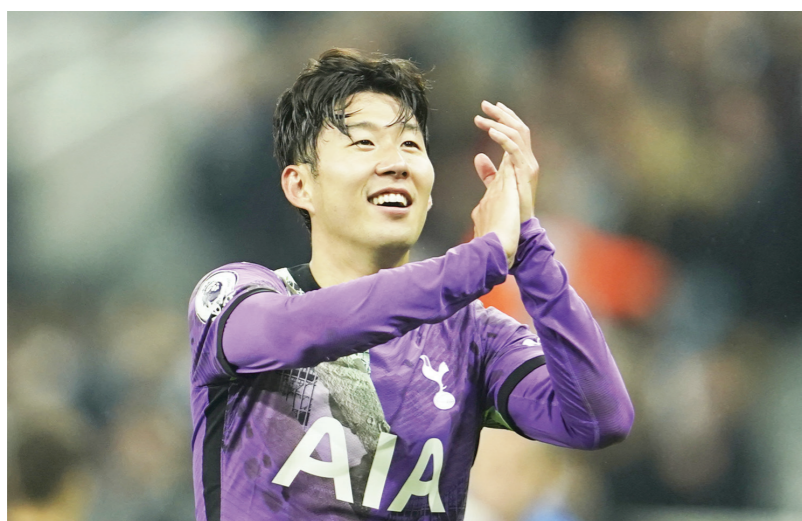
불러들인다. 이를 휴식 후 KT와 2연전을 갖고, 24일에는 SSG 랜더스를 상대하는 일정이다. 향방을 가늠할 수 없는 4-5위 경쟁도 계속된다. 현재 4위 두산과 7위 NC의 승차가 2게임에 불과해 언제든지 뒤집기가 가능하다. 두산은 19일 삼성전에 이어 21-22일 SSG와 2연전을 한다. 주말에는 LG와 더블헤더를 포함해 3경기를 소화해야 한다. 지난 주말 삼성에 내리 3연패를 당한 6위 키움은 19일부터 LG와 3연전을 시작한다. 24일에는 선두 KT를 만난다. 10월 팀 승률 1위(0.615)를 달리고 있는 9위 KIA는 이번 주 8연전을 앞두고 있다. 19일 SSG전, 20일 KT전, 21



일 한화 이글스전을 치르고 22일부터는 NC와 4연전이 예정돼 있다. 순위 싸움이 한창인 팀들을 연거푸 뉴시스

손흥민, 코로나19 해프닝 잠재운 4호골... 토트넘 2연승

케인 도움으로 골... EPL 통산 35골 합작으로 최고 기록에 한 골 남겨



영국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의 손흥민이 17일(현지시간) 뉴캐슬과의 시즌 8라운드 경기에서 3-2로 승리한 후 박수를치고 있다. 코로나19에 확진됐다든 잘못된 소문으로 우려를 불러일으켰던 손흥민은 이날 시즌 4호골을 기록하며 팀의 2연승을 이끌었다.

손흥민이 코로나19 해프닝을 잠재우고 리그에서 4호골을 터뜨리며 토트넘의 2연승을 이끌었다. 손흥민은 18일(한국시간) 영국 뉴캐슬의 세인트 제임스 파크에서 열린 뉴캐슬 유나이티드와의 2021~2022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8라운드에서 2-1로 앞선 후 반 추가시간 세 번째 골을 터뜨렸다. 토트넘은 3-2로 승리하며 3연패 이후 내리 2승을 거뒀다. 5위(5승3패 승점 15)로 올라섰다. 국가대표 소집에 앞서 6라운드 아스날전에서 골, 7라운드 아스톤 빌

라전에서 도움을 올린 손흥민은 3경기 연속으로 공격포인트 시상에 성공했다. 이번 시즌 리그에서 4골 1도움을 기록 중이다. 유럽축구연맹 유로파 콘퍼런스리그에서 올린 1도움을 보태면 공식경기에서 4골 2도움을 올렸다. 코로나19 확진 소동을 잠재운 활약도 더욱 돋보였다. 현지시간으로 16일 영국 스키이스포츠 등 현지 매체는 토트넘에서 선수 2명이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특히 토트넘 소식을 전하는 소셜 네트워크서비스(SNS) 데일리러스퍼를 비롯해 일부 언론이 “손흥민과 브리안 힐(스페인)이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큰 소동이 벌어졌지만 검사 결과가 잘못 나온 것이라는 구단의 발표와 함께 손흥민은 정상적으로 선발 출전했다. 이날 4호골은 환상의 듀오를 이루고 있는 해리 케인의 도움에서 나왔다. 케인은 도움과 함께 리그 마수걸

이 골도 기록했다. 손흥민과 케인은 통산 35번째 골을 합작하면서 프랭크 램파드-디디에 드로그바(첼시)가 작성한 역대 EPL 통산 최다골 합작(36골)에 한 골 차로 따라붙었다. 토트넘은 경기 시작 2분 만에 칼럼 윌슨에게 선제골을 허용했다. 선수들의 몸에 열이 올라오기도 전이었다. 그러나 볼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며 금방 분위기를 행했다. 전반 17분 당시 은동벨레가 정확한 오른발 슈팅으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고, 5분 뒤에는 케인이 역전골을 터뜨렸다. 케인은 피에르-에밀 호이비에르의 침투패스를 절묘하게 차 골키퍼 키를 넘겨 뉴캐슬의 골망을 흔들었다. 전반 추가시간 손흥민의 세 번째 골이 터졌다. 케인이 오른쪽 측면을 뚫고 땅볼로 찔러준 패스를 손흥민이 몸을 날리며 슈팅으로 연결했다. 전반을 3-1로 마친 토트넘은 후반 44분 에릭 다이어가 자책골을 내줬지만 끝까지 리드를 잘 지켜 승점 3점을 챙겼다. 한편, 전반 40분 무렵 관중석에서 미디어셀 응급상황이 발생해 약 30분 동안 경기가 중단됐다. 전반 추가시간으로 7분이 주어졌고, 여기서 손흥민의 골이 터졌다.



여자농구 메타버스 미디어데이. (사진=WKBL 제공)

WKBL 6팀 감독들 출사표 삼성생명 ‘벌떼농구’-KB ‘빠른 팀’ 24일 삼성생명-KB국민은행 개막전으로 6개월 대장정

2021~2022시즌 여자프로농구 정규리그를 앞두고 6개 구단 감독들이 개성 있는 출사표를 던졌다. WKBL 6개 구단 감독들은 18일 유튜브 채널 ‘여농티비’를 통해 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 방식으로 개최된 삼성생명 2021~2022 여자프로농구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새 시즌 각오를 전했다.

센터와 말고 있는 한영지 선수가 180cm고 또 4번(파워포워드)자리를 보고 있는 김단비 선수가 178cm인데, 당연히 센터 자원이 작기 때문에 저희는 주어진 선수 안에서 그런 농구를 할 수밖에 없다.

“디펜딩 챔피언” 용인 삼성생명 임근배 감독은 “벌떼농구”를 새 시즌에 펼치겠다고 밝혔다. 지난 시즌 준우승팀 청주 KB국민은행의 김관수 신임 감독은 “빠른 팀”으로 변화를 선언하며 스피드 있는 농구를 구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위성우 우리은행 감독 매년 시즌을 할 때마다 느끼지만 6개 구단 감독님이 다 마찬가지로 우승이 목표인 건 맞는데, 아무래도 과정이나 결과가 끝까지 좋아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로 생각한다.

또 아산 우리은행 위성우 감독은 신장이 고른 선수들을 활용해 ‘올라운드 플레이어’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새 시즌 여자프로농구는 오는 24일 삼성생명과 KB국민은행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6개월 대장정에 오른다.

▲이훈재 부천 하나원큐 감독 어느 한 선수에게 의존하기보다는 코트에 뛰는 모든 선수가 공격과 수비에서 각자의 책임감을 느끼고 코트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겠다. 근성 있는 팀이 됐으면 좋겠다.

◇다음은 WKBL 6개 구단 감독 출사표와 팀 컬러

주목점에 의존하기보다는 5명이 팔팔 뭉쳐서 공격력, 수비력 모든 부분에서 각자 책임감을 느끼고 누가 봐도 좀 ‘근성 있다’, ‘약값 같다’는 플레이를 보여줬으면 한다.

▲임근배 삼성생명 감독 지난 시즌 그래도 좋은 시즌을 보냈고 비시즌에 팀에 변화가 있었다. 이번 시즌은 변화된 선수들과 신임 선수들이 조화를 맞춰서 작년의 모습을 올 시즌에도 보여주리라 생각한다.

▲박정은 부산 BNK 감독 지난 시즌과는 다른 BNK만의 화끈하고 열정적인 시즌을 보여드리도록 열심히 하겠다. ‘열정적이고 매력적인 팀’이 되겠다. 답답한 경기보다는 시원시원하고 빠른 농구, 투지 넘치고 열정 있는 농구를 보여드리겠다.

▲구단단 인천 신한은행 감독 선수들이 어마어마한 시간과 땀을 코트에 다 쏟았다. 올 시즌 준비하면서 좀 더 단단해진 모습, 한 팀이 된 모습을 보여주겠다. ‘스물볼’이라는 농구를 계속해왔기 때문에 팀 컬러에 맞게 생각한다.

▲김관수 KB국민은행 감독 부상 없이 시즌을 잘 치렀으면 좋겠다. 일단 통합우승을 목표로 열심히 하겠다. 올 시즌 준비하면서 좀 더 단단해진 모습, 한 팀이 된 모습을 보여주겠다. ‘스물볼’이라는 농구를 계속해왔기 때문에 팀 컬러에 맞게 생각한다.

그리스 새 출발 앞둔 이재영·이다영 “빨리 뛰고 싶다”

PAOK 구단과 인터뷰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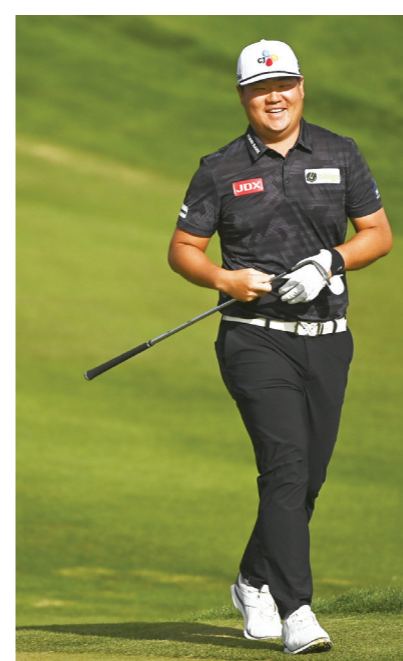
그리스로 떠난 ‘쌍둥이 자매’ 이재영과 이다영(이상 25·PAOK)이 새 소속팀의 뜨거운 환영 속에 새 출발을 준비하고 있다. PAOK는 17일(한국시간) 구단 유튜브 브를 통해 그리스에 도착한 쌍둥이 자매의 인터뷰를 전했다. 이들은 긴 비행시간 때문인지 다소 지쳐보이기도 했지만, 비교적 밝은 모습으로 첫 인사를 건넸다. 통역을 통해 진행된 인터뷰에서 이재영은 “너무 좋고, 기대도 많이 된다.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 수 있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다영도 “그리스에 오게 돼 기쁘고, 좋은 환경에서 운동하게 돼 너무 기쁘다”고 말했다. 이전에 그리스 리그의 영상을 본 적이 있는나는 질문에는 이재영이 “영상을 봤다. 경기하는 걸 봤는데 멋진 선수들도 많더라. 기대가 되고, 빨리 뛰고 싶다”고 의욕을 보였다. 이다영은 2018~2019시즌 V-리그 현대건설에서 한술밥을 먹은 마야와 재회하게 됐다. 마야는 이번 시즌을 앞두고 PAOK에 합류했다. 조지 포카치오티스 PAOK 단장은 직접 공황을 찾아 두 선수를 반겼다. 구단 SNS에도 쌍둥이 자매의 사진을 계속해서 게재하는 등 홍보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임성재, 더 CJ컵 공동 9위...매킬로이 PGA투어 통산 20승

임성재, 손목 불편해 조조 챔피언십은 불참

임성재(23)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더 CJ컵(총상금 975만 달러)을 공동 9위로 마쳤다. 임성재는 18일(한국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의 더 서밋 클럽(파72)에서 열린 대회 최종 4라운드에서 이글 1개, 버디 7개, 보기 1개를 묶어 8언더파 64타를 쳤다. 3라운드까지 공동 30위였던 임성재는 최종합계 20언더파 268타를 기록, 최종 공동 9위로 10위권 내 진입에 성공했다. 임성재는 지난주 슈라이너스 칠드런스오픈 우승에 이어 2주 연속 상위권에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또 2018년부터 4년 연속 이 대회에 참가 중인 임성재는 대회 최고 성적도 경신했다. 이번 대회 전까진 2019년 공동 39위가 최고였다. 국내 기업 CJ가 타이틀 스폰서인 이 대회는 2017년 국내 최초의 PGA 정규 투어 대회 2019년까지 제주도에서 열렸고, 2020년과 2021년은 코로나19로 개최 장소가 미국 라스베이거스로 옮겨졌다. 임성재는 경기 후 “첫 출발부터 이글 하면서 좋은 성적을 냈다. 그 기운이 마지막까지 유지돼서 많은 버디를 칠 수 있었던 것 같다. 그 기운이 많은 도움을 줬다”고 말했다. 이글 상황에 대한 “드라이버를 첫

홀에 그린 앞 20야드 정도 남겨서 핀까지 30야드 정도 뒀다. 채를 조금 열고 쳤더니 두 바운스에 맞으면서 바로 홀로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6개 홀에서 버디 5개를 집중시킨 임성재는 “후반 파3에서 보기하면서 좋았던 흐름이 살짝 끊겼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최대한 순위를 올리고 싶은 마음이 컸다. 13번 홀에서 병커샷을 쳤는데 또 들어가서 분위기가 바뀌었던 것 같다”고 했다. 임성재는 “지난주 우승이 심리적으로 도움이 된 것 같다. 자신감이 붙었다. 오늘은 최대한 많이 줄이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잘 맞아떨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임성재는 이 대회 후 일본으로 이동해 PGA 투어 조조 챔피언십에 나갈 예정이었지만 이를 취소했다. 그는 “첫날 손목이 불편한 상황에서 경기를 시작했다. 조금씩 괜찮아지는 하지만 관리를 해야 하는 상황인 것 같아서 그런 결정을 했다”고 했다. 대회 우승은 최종합계 25언더파 263타를 친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가 차지했다. PGA투어 개인 통산 20승이다. 매킬로이는 4라운드에서 이글 1개, 버디 5개, 보기 1개로 6언더파 66타를 쳤다. 2010년 5월 퀘일할로 챔피언십에서



PGA 투어 첫 승에 성공한 매킬로이는 11년 만에 통산 20승 고지를 밟았다. 이번 대회 우승 상금은 175만5000달러(약 20억7000만원)다. 매킬로이와 접전 끝에 아쉽게 진 콜린 모리카와(미국)는 준우승(24언더파 264타)을 했다. 3라운드까지 선두였던 리키 파울러는 키스 미첼(이상 미국)과 공동 3위(22언더파 266타)에 만족해야 했다. 이경훈(30)은 17언더파 271타로 공동 25위에 올랐고, 김성현(23)과 강성훈(34)은 16언더파 272타로 공동 32위에 자리했다.